

도내 5개 시군 '말산업 특구' 지정

전북도,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 등... 경제 활성화 기여할 듯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18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제4호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도에서는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5개 시군

이 연계하여 공모에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특구 지정 공모에 참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6월 28일) 및 발표평가(6월 29일) 등 심사 절차를 진행했고 9일 전북도내 5개 시군을 제4호 말산업 특구로 최종 지정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해 2013년도에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3~2020)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말사육농가 육성, 인프라 구축 등 말산업 육성 및 말산업특구 지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189억원을 투자, 현재 도내에는 23개소의 승마장이 운영,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49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4개

소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8~2019년 2년간 포괄보조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구지정 지역의 차별화된 말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말산업 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도가 중심이 되어 5개 시군과 말산업 전문가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장마·태풍 물폭탄에 가뭄 걱정 '끝'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전국 누적강수량 238.6mm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와 최근 태풍에 의한 강수 영향으로 전국에 당분간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9일 발표한 7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누적강수량은 238.6mm로 나타났다. 기상분야는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133%로 전국적인 강수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농업·생활·공업용수 분야는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138%, 다목적댐 저수율은 121%으로 향후 평년수준 강우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당분간 가뭄 걱정은 없었지만 영농기가 끝나는 10월까지 댐·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 관리해 올해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상황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능가맛집 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숍

9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능가맛집 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숍'에서 리승용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자율주행·전기자동차 발전도, ICT분야 대응방안 논의

전북형 ICT 융복합 전략세미나... 상생 방향성 도출 상용차 주행안전·자율주행 기술동향 등 주제 강연

전북도는 9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인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른 ICT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북형 ICT 융복합 사업 전략세미나'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관호 ICT발전협의회 의장,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최관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신성장산업인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분야 전문가와 ICT분야 전문가가 네트워크 장 마련을 통해 상호간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ICT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 도출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성곤 자동차융합기술원 책임연구원의 '상용차 주행안전과 자율주행 기술동향', 하호선 한국가제어링 대표이사의 '전기자동차 산업 전망-IV 카셰어링 서비스 동향'에 대한 주제로 강연했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북지역에 맞는 ICT 융복합 사업 추진을 위해 ICT발전협의회 위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향후 전북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인사

△팀장급 전보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유호연 ▲회계감사팀장 이진관 ▲조사감찰팀장 이지형 ▲원가감사팀장 김미순 ▲인권센터 인권정책교육팀장 김금숙 ▲기획관 대도약정책TF팀장 이경영(7.20일자) ▲예산과 재원조정팀장 김현욱 ▲재정투자심사팀장 박순인 ▲재정평가팀장 이정탁 ▲성과관리과 확인가감팀장 손영숙 ▲법무행정과 행정심판팀장 손미정 ▲승무팀장 한승룡 ▲안전정책관 안전정책팀장 김창호 ▲생활안전팀장 박동우 ▲재난정보팀장 이해은 ▲총무과 비서관 한근호 ▲공무원단체팀장 정재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장 이경순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설상희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양삼봉 ▲농업기반팀장 김학중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 김경완 ▲농식품산업과 식품클러스터팀장 양연숙 ▲농자재종자산업팀장 신미혜 ▲농식품마케팅팀장 이미숙 ▲축산과 축산진흥팀장 김홍표 ▲동물방역과 질병관리팀장 박태욱 ▲해양수산과 어촌관광팀장 채종석 ▲수산지원팀장 김경균 ▲문

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장 김경철 ▲관광총괄과 관광마케팅팀장 이재신 ▲체육정책과 태권도스포츠산업팀장 이성철 ▲문화유산과 문화재보존팀장 김용수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운영팀장 한경모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오욱택 ▲물환경관리과 수질보전팀장 최지선 ▲도양지하수팀장 최강영 ▲수계관리팀장 정현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최영두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장 최환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강원양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장 송은주 ▲역학조사관 허미나 ▲지역정책과 건설행정팀장 이남섭 ▲지역발전팀장 윤근배 ▲교통물류도로과 도로교통팀장 양희훈 ▲항만공항하천과 항만팀장 양주생 ▲철도공정팀장 배희곤 ▲하천계획팀장 김남진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장 허정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홍인기(7.31일자) ▲인력양성팀장 박오주 ▲노사협력팀장 양유정 ▲미래산업과 연구개발특구팀장 김호덕 ▲SW산업팀장 박병언 ▲바이오산업팀장 이영노 ▲탄소산업과 탄소정책팀

장 한병삼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팀장 김 정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팀장 김병하 ▲의회사무처(팀장오원) 채종우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 서경원 ▲기후변화대응과 송은주 ▲원예산업과 이진재 ▲허브시험장장 김동원 ▲농촌지원과 최 윤 희 ▲농촌지원과 임용환 ▲친환경기술과 성진경 ▲잠사촌정시협장장 유영진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장 서영민 ▲교육운영1과 사이버교육팀장 장재영 ▲교육운영2과 시책교육팀장 장재영 ▲전문교육팀장 박희중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과장 박수 ▲대기환경과장 권태혁 ▲서울사무소 세종분소장 채경임 ▲농식품인력개발원 관리팀장 이영삼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이정원 ▲질병진단과장 이재욱 ▲수산업연구소 수산질병센터장 황갑성 ▲어업기술센터장 김정열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장 김병문 ▲도립국악원

사무국장 장병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김성국 ▲안전과장 김원기 ▲총무과(기획재정부 과전, 7.20일자) 이영란 ▲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전 황병만 ▲기획관(여성가족부 과전, 7.11일자) 이동현 ▲산림청 과전 장성기 ▲감사원 과전 김황중 ▲총무과(국민권익위원회 과전, 7.16일자) 이경순 ▲주택건축과(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과전, 7.11일자) 황대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전 한정배 ▲자치분권위원회 과전 최재길 ▲총무과(전라남도 과전, 7.31일자) 임수택 ▲강소성 과전 백정기 ▲전북연구원 과전 이영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과전 최철하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과전 김홍경 ▲군산의료원 과전 이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과전 박신미 ▲전북개발공사 과전 김형남 ▲군산시 전철 이선철 ▲완주군 전철 소병호 ▲진안군 전철 장교익 (7월 10일자)

▶ 전주시 인사

◇3급(부이사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4급(서기관)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관주 ▲생태도시국장 직무대리 김종업 ▲시민교통본부장 장병호 ▲보건소장 송준철 ▲완주군 전철 소병호 ▲진안군 전철 장교익 (7월 10일자)

정은호 한전 전북본부장 취임

정은호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장이 9일 취임했다.

정 본부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2009년 한전충남본부 태안지점장, 경기북본부 재무자재팀장, 자원사업처장,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장, 경제경영연구원장, 해외사업개발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